

# “불용예산 이월 반복... 대책 마련해야”

## 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어제 개최... 안건 30건 심의 김 의장,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 등 ‘제주홀대론’ 지적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 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선내 곳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도보다 여섯 개 부서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호

울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용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번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공공기관의 이전 노력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인천에 개청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이 있던 제주에 들어



13일 개최된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길 희망했지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정부 조직 개편에 제주관광청마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약속을 외면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제418회 정례회 열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 송재호 의원... 어업인 지원 및 자원 마련 핵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자원 마련을 핵심으로 한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3일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나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나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 도의회 제2기 예결위원장 양용만 의원 내정



제12대 제주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내 의원총회를 열고 양용만 의원을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정자 선출했다. 양용만 예결위원장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옛 제주전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귀덕2리장, 한림JC 회장, 한림읍발전협의회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에는 조선인 현기종 의원(성산읍)이 선출됐다.

이태윤기자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에 2공항 100억 반영

## 제2공항 기본설계비 항목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예산 1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예산안에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0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65억원

을 시작으로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에 대한 2차에 결정을 내리면서 집행되지는 않았다.

예년에 비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본설계계약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제2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부족한 비용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마련 촉구”

## 송창권 의원, 5분 발언서 “정부, 해양주권 지켜줘야”



송창권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사해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어업관련 주민, 중국, 홍콩, 대만, 태평양 섬국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 85% 이상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은 아랑곳 않고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운을 폈다.

이어 송 의원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면서 ‘100’을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적하는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생존권적 항의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왜 규탄하지 못하냐”면서 “해양주권과 해양생태환경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적 논의 탄력

##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UAM 촉진 법안 의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수소경제, 우주산업과 함께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형 에어택시를 시작으로 물류와 응급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영역을 늘린 뒤 제주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목표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의 비행기와 활주

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나 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초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제2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6.4.)에 따라 2023년 신규예비 인증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6.

###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공고기간 : 23.6.1.(목)~7.31.(월)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1주간 서면현장조사 실시)

□ 신청대상  
1) 예비인증 대상 : 대상주체 / 사업장 입지지역 / 주원료 형태(자가, 계약 재배, 지역매입)의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자등록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체 ▶ 47지 총축하는 경영체  
2) 신규인증 대상 : 대상주체 / 사업장 입지지역 / 주원료 형태(자가, 계약 재배, 지역매입) / 사업성과(2년 경과, 44,657천원 이상인 경영체) ▶ 47지 총축하는 경영체

□ 인증 자격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 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성업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농업)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에 규정된 농촌지역 □ 농촌융복합사업장 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에 규정된 농촌지역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작성·산출 관련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 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명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 사과껍질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주원료 품목의 총액비율 여부 - “기술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차기농산 계획안,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주원료)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사도의 경우 인정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3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b>최근 3년 평균 농가소득 44,657천원 달성 및 충족</b> - 최근 3년간 평균 농가소득 : 44,657천원 * 산출 근거 : 19년 41,182천원, 20년 45,029천원, 21년 47,759천원 □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년인 경우 인정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매출액) 국제성 등 국가기반에 신고된 국가기술혁신제품(농산물) 또는 표준제품(농산물)을 국·내외 판매했거나, 수출·수입 실적 등 증명 가능한 서류로 신청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인 대표자에게 사업성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 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명비율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임금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기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인증 신청서류 (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인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중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지지역 증명서류, 지역농산물 증명서류 등

□ 인증신청 접수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직접접수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 제주시 청담로 213-65, 2층 김승주팀(064-722-7917)  
\* 방문접수 전, 일정조율을 위해 반드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7.31.(월) 18:00 도착에 한함

□ 공고 관련 추진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1. 예비인증	6월~7월
2. 신규인증	7월~8월
3. 예비·신규 인증	7월~8월
4. 예비·신규 인증	8월 중
5. 예비·신규 인증	10월 중

\*인증심사는 집합설명회 또는 현장방문 설명회로 개최 예정(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참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설명회 개최  
○ 일시 : 23.6.15.(목) 10:00~12:00  
○ 장소 :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 (제주시 청담로 213-65)  
○ 온라인 사전신청 : <https://forms.gle/qZM3E5KpggTmN6Gh6>  
사전신청 QR코드 ▶

□ 문의처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화 : 064-722-7917 / e-mail : stormand@jeju6th.kr / Fax 064-722-7919

□ 농업경영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코칭 실시  
○ 기 간 : 현재-예산소진시  
○ 사업비 : 컨설팅 지원 80%+지방비20% (1유형 또는 3유형 유형비에 각각 지방비 50%)  
○ 문의전화 : 064-722-7916

## 제주도민 대상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교육 실시 (비대면 수업)

**■ 나무의사란?**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 응시자격**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자 (모집 공고 참조)

**■ 교육기간(160시간)**  
○ 나무의사 교육생 30~50명  
▷ 수요일 야간 4시간, 토요일 주간 8시간 교육  
▷ 2023년 08월 19일(토요일) ~ 2023년 11월 25일(토요일) (15주 교육)  
▷ 지원자가 30명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과정은 폐강됨  
○ 교육비 : 2,020,000원

**■ 수목치료기술자란?**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

**■ 응시 자격**  
자격 요건 없음

**■ 교육기간(190시간)**  
○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생 30~50명  
▷ 수요일 야간 4시간, 토요일 주간 8시간 교육  
▷ 2023년 08월 19일(토요일) ~ 2023년 12월 9일(토요일) (18주 교육)  
▷ 지원자가 30명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과정은 폐강됨  
○ 교육비 : 2,000,000원

**교육 방법**  
○ 이론 교육 : 전면 비대면 강의 실시(ZOOM Meetings 사용)  
○ 실습 교육 : 제주 한라수목원 내 대면실습

**교육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6월 7일(수) ~ 7월 19일(수) 오후 6시  
○ 신청방법 :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참고 E-mail 신청 : treejbn@naver.com

**선발 방법**  
○ 응시지원자 자격조건 해당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발  
○ 추첨 방식으로 선발

**최종 발표 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경  
○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접수 관련**  
○ 교육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참고

**기타 문의**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063) 219 - 523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064) 710 - 7571

**“나무의사가 무엇인가요?”**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의 병을 치료해 주고, 진단, 치료하는 나무 의사입니다. (전문분야: 나무의사)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 의사입니다. (전문분야: 나무의사)

**“나무치료기술자란 무엇인가요?”**

나무치료기술자는 나무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전문분야: 나무치료기술자)

나무치료기술자는 나무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전문분야: 나무치료기술자)